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정기공연

# 불만폭주 라디오 대본집



## <나오는 사람>

### 1. 서른 즈음에

영진, 영진 엄마, 사회복지사, 은행직원, 은행 경비, 점장님, 그 외 요원들, 손님, ATM기계, 서랍장

### 2. 성공한 여자의 하루

현주, 활보, 아들, (딸-아기), 남편

### 3. 예술가입니까?

나예슬, 기자, 평론가(학자)1,2,3, 큐레이터, 춤추는 허리 배우들

극본 : 경민선, 문정연

이야기 :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 배우

연출 : 서지원

기획 : 이진희

제작 : 장애여성공감

## <무대>

『무대 한쪽에 DJ박스와

순식간에 공간이 변화되는, 마술같이 텅 빈 무대!

관객입장이 끝나면 DJ박스에 불이 들어온다.

DJ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  
                          여기는 불만폭주 라디오

오프닝 음악

DJ                    안녕하세요? 불만폭주 라디오의 DJ이보희입니다. 저희 불만폭주 라디오는 재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자기중심을 잃지 않고 느리고 유쾌하고 까칠하게 살아가는 장애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객 여러분을 모시고 멋진 시간을 함께 만들어보려 하는데요, 우선 참석해주신 여러분, 완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관객들에게 조명빨~ 박수』 1

영진                    (소리친다) 엄마! 안돼!

똑같은 옷과 똑같은 안경을 쓴 영진엄마1,2,3 영진을 둘러쌌다. 위협적이다.

영진엄마1            (영진에게 폭탄을 겨누며) 영진아! 엄마가 뭐랬니!

영진엄마2            (영진에게 폭탄 겨누며) 영진아! 엄마가 하지말라고 했지

영진엄마3            (영진에게 폭탄 겨누며) 영진아!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어 안했어!

영진                    (모든 엄마들을 돌아보며 절규한다) 엄마, 나 이제 서른살이라고!

영진엄마들            영진아 오직! 안전!

DJ당황하며 마이크를 잡는다.

DJ                    아이쿠, 첫 번째 사연부터 시끌벅적 사연인가보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자, '불만폭주 라디오' 첫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제목은 '서른즈음에' 음... 서른 살과 안전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막 궁금해지는데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흐른다. 무대 중앙에는 영진만 남아있다.

DJ                    (사연을 읽는다.) 내년엔 뭔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서른이 되는 영진이라고 합니다. 제 지갑에는 딱 7천원이 들어있어요. 날마다 엄

마가 저에게 주는 용돈이죠. 저는 7천원을 들고 아침 일찍 못데리아에 갑니다. 거기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며칠 후면 12번째 월급을 받는 날이니까요. 저는 어제 진짜 진짜 큰 결심을 하고 점장님을 찾아갔어요!』 3

『영진, 못데리아 유니폼을 입는다.

점장, 영진 앞으로 나타난다.

점장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영진            저... 점장님... 이번 달 월급이요... 저한테 직접 주시면 안돼요  
점장            직접 주고 있잖아. 영진씨 통장으로! 매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넣어주고 있잖아.  
영진            통장을 엄마가 관리하시거든요.  
점장            당연히 그러셔야지.  
영진            그치만... 일은 제가 하는데...  
점장            영진씨 엄마가 영진씨지 뭐, 다 그쪽 위해서 그런 거야.  
영진            아뇨! 점장님, 이번 달 부턴... 통장으로 말고... 그냥 저한테 직접 월급을  
                  돈으로 주세요!  
점장            원래 멀쩡한 사람들도 금전 관리는 다 부모님이 해 주는 거야! 괜히 영진  
                  씨한테 현금으로 줬다가 영진씨가 잃어버리기라도 해봐. 나만 곤란해 저.  
영진            딱 한번만이라도 제 월급을 제가 가져보고 싶어요!  
점장            그리고 이게 다 증거가 남아야 해서 월급은... 계좌로 보낼 수 밖에 없어.  
영진            점장님, 제발!  
점장            어머니가 허락은 하신거야?  
영진            저 이제 곧 서른이라구요!  
점장            쫓쫓...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겠어!  
영진            점장님, 진짜! (소리 뻑)못 참아!  
점장            진정! 진정해! 괜히 또 저번처럼 난리피지 말고!  
영진            제가 무슨 난리를 폈다고 그러세요! 그땐, 조리부 사람들이 절 막 때려서  
                  그랬던 거잖아요! 점장님도 다 보셨잖아요!  
점장            아유, 알았어... 알았고.... 월급 직접 받고 싶었지?  
                  우선 통장부터 만들어! 영진씨가 직접 관리하는 통장!  
영진            제가 직접 관리하는 통장이요?  
점장            그쪽으로 월급을 넣어주는 건 내가 해줄 수는 있어!  
영진            통장! 통장만 만들면 제가 제 월급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4

『순간, 007 음악 울려 퍼진다.

음악 찾아들면

‘작전명 -나만의 통장을 만들어라!’

어느새 비밀 요원들 쏟아져 나온다.

요원들           작전명 ‘나만의 통장을 만들어라.’  
요원1           영진 요원, 각오는 됐겠지?  
요원2           작전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영진           신분증은 있지만... 도장? 도장 없는데?  
요원1           싸인으로 해도 되잖아.  
요원2           은행에서 괜히 트집 잡을지도 몰라!  
요원1           요즘엔 다 싸인으로...  
영진           맞다. 도장! 도장은 엄마가 서랍 깊숙이 숨겨 놓으셨어!  
요원들           영진 요원! 행운을 빈다!』 5

『다시 한 번 007 음악.

무대는 순식간에 영진의 집이 되고 요원들, 뒤 돌면  
휠체어와 간단한 소품을 이용해 영진 집의 가구나 이불  
알람시계 등등으로 변신한다. 이른 새벽이다

영진, 도장을 찾기 위해 서랍을 뒤지고 영진 엄마, 잠에 빠져있다.  
그때 시끄러운 알람소리.

영진은 깜짝 놀라고 잠에 취한 영진 엄마는 뒤척인다.

영진엄마       영진아, 출근해야지..  
영진           아냐... 아직... 엄마... 더 자...

영진, 간신히 알람시계를 찾아 끄자  
영진엄마, 큰 하품소리. 다시금 잠에 빠진다. 드르렁...  
안도의 한숨 쉬는 영진.  
살금살금 이 서랍 저 서랍을 뒤진다.

영진           도장을 도대체 어떤 서랍에 둔거야...

영진, 서랍을 살금 여는데...  
영진엄마, 불안간 팔을 대자로 벌린다. 그 팔로 서랍을 퍽 닫는다.  
깜짝 놀라는 영진.

영진엄마       (잠꼬대한다) 도장, 도장은 화장대 아래 세 번째 서랍에 있는데...

영진, 이제야 알았다는 듯 화장대 아래 서랍을 뒤진다. 드디어 발견한 도장.

도장, 보통 크기보다 큰 우화적 느낌의 도장.

영진 (도장 찾았다!

영진엄마 (벌떡! 확 눈을 뜨며 공포영화 포스) 몇 시냐? 영진아... (하품)』 6

『영진, 모든 사물들 얼음.

영진, 가지고 있던 도장을 가구에게 패스한다. 영진 엄마, 영진을 의심스럽게 본다.

영진엄마, 영진이 도장을 패스한 가구를 의심스럽게 쏘아본다.

가구, 다른 가구에게 도장을 패스한다. 공놀이 하듯, 이리저리.

영진 엄마 가구들의 도장 패스 놀이에 눈이 뱅뱅 돌 지경이다.

영진 (도장을 확 숨기며)엄마 나 일하러 가게.

영진엄마 이렇게 일찍? 맞다! 너, 오늘 오후 근무했잖아.

영진 저... 아니... 그게... 바꿨어! 간다!

뛰어나가는 영진.

영진엄마 영진아! 차 조심 하고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조심조심.

영진엄마, 영진을 따라가며 소리친다.

영진 엄마도 조심해 알았어! 알았다구!』 7

『돌아보며 엄마 없다.

영진 일단 탈출 성공! (도장을 꺼내본다) 은행으로 고고고!

영진 뛰어 나간다.

다양한 숫자들이 신호등인 듯 여기저기서 색색깔로 깜박대는 영상. 그 영상과 함께

‘띵동, 234번 손님, 2번 창구로 가십시오.

라는 안내음 들린다. 무대는 은행이 된다.』 8

『은행경비 무슨 업무 보러 오셨습니까?

손님 적금 해약하려고요.

은행경비 (번호표 뽑는 기계를 누르며) 5번 창구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은행경비, 5번 창구를 안내한다.

이때 영진, 헉헉대며 뛰어들어 온다.

은행경비      어떤 업무 보실... (영진 위 아래로 훑어보며) 혼자 왔어?  
영진            저... 통... 장... 만들려고... 하는데...  
은행경비      누구 통장?  
영진            내 통장 만들거예요!  
은행경비      (번호표 뽑아들고는) 보호자는? 같이 안 왔어?  
영진            (번호표를 뺏으려한다) 내가 직접 내 통장 만들거라구요!  
은행경비      (번호표를 요리조리 훑기며 주지 않는다) 요즘 통장 만들기 까다로워... 제  
한 사항들도 워낙 많고 복잡해서 기다리나마나 안된다니까! 안 돼! 그냥  
집에 가. (  
영진            (번호표를 확 뺏는다)왜 저한테 반말 하세요?  
은행경비      고생하지 말고 다음에 부모님이랑 다시 오시라구요. 내 말 알아들으시죠?  
예? 알아들으시냐고요?  
소리            246번 손님.  
영진            (번호표 본다) 저! 저요! 제가 246번 이에요!  
은행경비      소용없대두!』 9

『영진, 창구에 쫓르르 가서 앉는다.

은행직원      저희 은행이랑은 거래가 처음이시네요.  
영진            여기 도장이랑 신분증이요.  
은행직원      통장은 왜 만드시려고요?  
영진            그냥요...  
은행직원      그냥은 안 만들어 주는데... 공과금을 내야 한다거나... 월급을 받아야 한다  
거나...  
영진            월급! 월급 받으려고요.  
은행직원      (대사 엄청 빠르게) 명함,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있어야 되요.  
영진            예?  
은행직원      (대사 엄청 빠르게) 요즘 대표통장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방  
지하기위해...  
영진            저... 무슨 말인지... 천천히 말씀해주시면...  
은행직원      서류가 더 필요하다구요.  
영진            무슨 서류...  
은행직원      아까 말씀 드렸는데...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증.  
영진            그런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10

『사회복지사아유, 내가 워낙 바빠서 그러는데... 나부터 좀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영진 (돌아본다) 어!?

사회복지사 어머! 너!

영진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영진이 맞지! 어머, 많이 컸다!

영진 해헤.. 이젠 늙었죠. 저도 이젠 서른 살인데...

사회복지사 근데 은행에 무슨 일이야? 엄만 어디 계셔?

영진 저 혼자 왔어요.

사회복지사 어머 기특해라!

영진 통장 만들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은행직원에게) 저기요...  
(은행직원에게 속삭인다)

은행직원 아... 네... 저, (영진보며) 저 손님...그럼... 30만원 출금 제한하는 통장이  
있긴 한데...그 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영진 네?

사회복지사 서류 줘 봐요.

은행직원 (서류 주며) 여기...

사회복지사 영진아, 이걸로 만들면 돼. 선생님이 우리 복지관 다니는 친구들, 벌써 몇  
개나 만들어 줬거든. 따로 필요한 서류도 없고 하루에 최대 30만원 까지만  
찾을 수 있고 더 이상은 못 찾아서 문제 일으킬 염려도 없어. 어때? 이 걸  
로 통장 만들까?

영진 그러니까... 이 통장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사 아유, 다시 들어도 넌 몰라. 그냥 네가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이것 뿐이야.  
어때? 좋지? (은행직원에게) 이걸로 해 주세요.

영진 어쨌든 통장, 제 통장 생기는 거죠?

사회복지사 그럼! 근데 통장은 뭐 하려고?

영진 제 월급... 제가 직접 타고 싶어서요.

은행직원 여기 도장 찍으시고요... 여기엔 주소 쓰시고...

사회복지사 영진아, 월급으로 뭐 하려고?

영진 그냥... 내 월급이니까...

사회복지사 돈 필요한데 있어?

영진 많죠!

사회복지사 (비밀 캐내듯) 우리 영진이, 요즘 누구 만나니?

영진 공감 사람들 자주 만나요.

사회복지사 (흔жат말) 공감? 처음 들어 보는데? 혹시 다단계? 아님 보이스피싱!』 11  
『은행직원  
여기 비밀번호 네 자리 눌러주세요.

영진 비밀번호? 어떤 거 눌러야 해요?

은행직원 아무 숫자나. 네 자리로 누르세요. 생일이랑 핸드폰 뒷자리 안되시고요...

사회복지사 내가 눌러줄게. 네 옛날 방 번호로 하면 되지?

사회복지사, 비밀 번호 누르려 한다.



영진                   제가 누를께요. (누른다)  
 사회복지사       (확 뺏으며) 영진아, 네가 비밀번호 기억이나 하겠어? 내가 눌러주고 적어 주면 되잖아.  
 영진                   (빼앗아서 누른다) 제 비밀번호니까... 제가 정할래요.  
 사회복지사       근데... 영진아, 어머님도 네가 통장 만드는 거 아시니?  
 영진                   그... 그럼요. 당연하죠!  
 사회복지사       (흔잣말) 왠지 예감이 안 좋아! 뭔가 있어!  
 은행직원         통장이랑 카드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회복지사       영진아, 나도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사회복지사, 급하게 퇴장한다.』 12

『은행직원         여기, 영진 고객님! 통장과 카드 나왔습니다. (통장과 카드 준다)  
 영진               (받아 들고는) 이거 진짜 제거 맞아요?  
 은행직원         그럼요!

걱정적인 축하음악 나온다.

영진               나한테도 드디어 내 통장 생겼다!  
 은행직원         영진 고객님, 근데... 카드 사용법 아세요?  
 영진               카드는 한번도 써 본 적 없는데...  
 은행직원         제가 알려드릴까요?  
 영진               완전 감사하죠!』 13

『다시 한번 걱정적인 축하음악과 함께 ‘작전명 -나만의 통장을 만들어라’ 성공적으로 완성!

이라는 자막 뜬다. 그 영상을 배경으로 비밀스럽게 등장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그렇다니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이건 분명 뭔가! 걸려든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 심장이 두근거려요! 최악이에요! 최악!  
 영진               어!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영진, 사회복지사 발견하면 무대 조명 환하게 밝아진다.  
 사회복지사       호호호... 그래 영진아, 통장은 다 만들었니?  
 은행직원         영진 고객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영진               선생님 저 가볼께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래... 그래... 우리 영진아! 언제나 조심하고!

사회 복지사, 뒷걸음질 치며 영진을 살펴본다.』 14

『영진은 은행직원 곁으로 간다. 은행직원 앞엔 ATM기계가 놓여져 있다. 배우들이 간단한

소품으로 ATM 기계를 연기한다.

영진            이렇게 카드 넣고...  
은행직원      이젠 입출금으로 선택 버튼 누르시고...  
영진            여기요?  
은행직원      돈 넣으시고...  
영진            여기 7000원이에요!  
은행직원      이번엔 비밀번호... 전 안 볼게요.  
영진            확인 누를까요?  
은행직원      입금 됐어요! 여기 명세표랑...  
영진            우와! 진짜... 7000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은행직원      여기 영진 고객님의, 통장이랑 카드!

은행직원이 카드를 건내려는데...』 15

『멀리서 소리 사이렌소리와 함께 “절대 안돼!” “위험해~”  
똑같은 웃과 똑같은 안경을 쓴 영진엄마1,2,3 영진을 둘러싼다.

영진엄마1      (영진에게 폭탄을 겨누며) 영진아! 돈은 엄마한테 맡기랬지!  
영진엄마2      (영진에게 폭탄 겨누며) 영진아! 돈은 위험하다고!  
영진엄마3      (영진에게 폭탄 겨누며) 영진아! 돈 가지고 있으면 이용만 당해!  
영진            (모든 엄마들을 돌아보며 절규한다) 엄마, 나 이제 서른살이라고!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

이땐 어디선가 나타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영진아, 난 정말 네가 너무 걱정돼서...  
영진엄마들      통장이랑 카드 내놔!  
영진            싫어! 이거 내거야! 조카 미영이는 13살인데도 자기 통장이 있잖아!  
영진엄마들      그래도 안돼!  
영진            엄마! 제발! 내가 뭘 원하는지... 좀 물어봐줘!  
                  나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영진엄마들      혼자선 안돼!

영진엄마들, 다같이 영진에게 폭탄을 던진다.

거대한 폭격음과 함께 원자 폭탄 터지는 폭탄과 함께 날아오르는 통장과 직불 카드 한 장의  
영상.』 16

『DJ            결국, 저는 7000원이 들어있는 제 통장과 카드를 그 자리에서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 나한테 통장 하나 만드는 일이 이렇게 전쟁 같고 007작전  
                  같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월급을 내가 가지려는 것 뿐인데... 그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세상 모두가 저의 보호자가 되려고 해요! 모두다 엄마가 되려고 하죠! 다른 건 몰라도 저에 대해서 만큼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잔소리 폭탄과 걱정 폭탄을 날리죠!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인가요?

영진 서른이 되면 내 방도 생기고... 내 통장도 생기고... 날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

DJ 영진씨가 서른이 되려면... \*\*일(공연날짜로 계산) 남았네요.

영진 내일 다시 한 번 은행에 갈 거예요! 작전명 -나만의 통장을 만들어라- 첫 번째는 실패 했지만... 서른이 되기 전엔 꼭! 꼭!

DJ 성공하길 기대 하면서... 불만폭주 라디오 DJ는 영진씨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지켜볼게요. (비밀 요원인 듯) 영진요원, 행운을 빈다!

007 음악과 함께 서서히 조명이 어두워진다.』 17

(전환 조명)

(조명)DJ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  
여기는 불만폭주 라디오!

음악.

(조명)DJ 다음 사연의 제목은... ‘성공한 여자의 하루!’ 잠실동에 사는 현주씨의 사연인데요,오~ 현주씨, 성공한 분이신가봐~ (읽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장애남성과 결혼하여 남들에게는 성공 신화로 회자되고 있는 장애여성입니다. (읽는 걸 멈추고)아... 이래서 성공한 여자라고 하신 거군요. (살짝 씩씩한) 음... (계속 읽는다.) 우리 뜨겁게 사랑했고 힘들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8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여섯 살 아들과 얼마 전엔 딸까지 얻었습니다.올 여름부터 공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비장애인과 결혼도 하고 애도 둘이나 있고 일자리도 생겼으니 월 더 바라겠냐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들 하는데요,』 1

『그때, 어디선가 어린 아이의 힘찬 고향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DJ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잠시 어리둥절, 잠잠해지자 다시 읽는다.) 과연 정말로 그럴지 오늘, 그 인생을 같이 한 번 보시죠!

어디선가 앰블런스 소리와 총소리, 음악소리, 어린 아이의 힘찬 고향소리와 아기 울음소리

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평일 한 낮의 현주집이다.

'110' 표시를 단 현주, 거실에 앉아 이 전쟁통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한다.

아들은 미친 듯이 거실을 뛰어다닌다.

활보는 아기를 업고 달래며 분유를 탄다. 아기는 원 없이 울어 제낀다.

현주 (외출준비하며) 아들~ 엄마 저 가방 좀 갖다 줘.

아들 엄마, 나 바빠! 지금 사람들 구하러 가는 길이야! 뽀옹뽀옹뽀옹-

현주 도와주라. 엄마 회의하러 가야 한단말야.

아들 그런 건 활보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해! 다다다다다뽀송뽀송- 피해! (현주 뒤에 숨어서) 큰 일 났다. 출동!

현주 선생님은 아기 재우고 있잖아.

아유, 너네 아빠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내가 오늘 저녁에 회의 있다고 그렇게 애길 했는데...』 2

『그때 활보가 나온다.

현주 선생님! 저 외출 준비 좀!

아들 (동시에 활보에게) 선생님! 우리 같이 출동하자! 미니특공대 출동!

활보 췌, 조용! 동생 잠들었잖아.

아들 그럼 작은 소리로 출동하면 되잖아! 출동~!

활보 어허! (엄하게) 길동아, 너 동생이 잘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들 (기가 죽어서) 공부하라고 했어요.

활보 그래! 동생이 잘 때는 공부하는 거야.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했지? 얼른 책 가져와!

아들, 기가 죽어서 방에 책을 가지러 간다.』 3

『현주, 그런 아들이 신경이 쓰인다.

현주 선생님... 아이한테 그런 게 남자다운 거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활보 (언어장애 때문에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다.) 뭐라구?

현주 남자다운 거라고 말하지 말라구요.

활보 남자다운 거다, 말하지 말라고? 아니 왜? 남자애는 남자답게 키워야지.

현주 맞는데요, 공부하는 거랑 '남자다운 건' 상관 없잖아요.

활보 아유... 공부하는 거랑 '남자다운 거'랑 상관없다고? 거, 희한하네. 왜 상관이 없어?

현주 (답답해서 또박또박) 아니, '남자다운 거랑'.』 4

『아들, 책을 들고 나온다. 활보는 현주의 말보다 아들에게 신경을 더 쓴다.

활보            그래 그래 여기 앉아 봐. 전에 ‘마더, 파더, 보이, 걸’까지 배웠지? 선생님  
                   이 이 단어 다 외우라고 했잖아? 자, 한 번 써 봐, 써 보라구!  
 아들            아잉~ (짜증을 내며 머리를 긁적이고만 있다.)  
 활보            이걸 왜 못써 보고 그대로 쓰면 되잖아. 이걸 왜 못 해? 집중!  
 아들            이거 쓰면 미니특공대 출동 할 거야?  
 활보            뭐? 그래, 이거 다 쓰면 해줄게!

아들, 결심한 듯 뭔가 그려보려고 애를 쓴다.』 5

『현주            선생님, 저 근데... 외출준비부터 도와주심 좋겠는데... 말씀 드렸었잖아요.  
                   오늘 저녁에 공감 회의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활보            애 아빠도 안 왔는데... 어딜 나가? 일요일이니까 못 나겠다고 연락 해!  
                   애들 둘만 두고 우리만 나갈 수도 없고... 현주씨도 나 없이 혼자 못 나가  
                   잖아.  
 현주            남편 곧 올 거예요. 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다가 남편오자마자...  
 활보            지난번 주말에도 남편 술 먹고 늦게 오더만... 애들 클 때는 여자는 일 못  
                   해. 애들이 중요하지! 현주씨가 또 벌면 얼마나 번다고... (괜히 무안해져  
                   서) 길동아... 마더... 파더... 다 썼어?  
 현주            선생님... 저 ... 그리고... 영어는 안 가르치시면 좋겠는데...  
 활보            (현주에게) 내가 현주씨 활동보조로 온 거라 사실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써  
                   도 되는데, 현주씨 사정 잘 알고, 다행히 이 정도 기본 영어는 가르칠 수  
                   있거든.  
 현주            선생님... 마음은 감사한데요,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활보            안 그래도 된다고? 아냐 아냐 부담 갖지 마, 요즘은 여섯 살이면 이 정도는  
                   다 배워. 엄마 몸이 힘들다고 남의 자식들은 다 하는 건데 못 시켜 봐, 현  
                   주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현주            그게요... 저희는요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안 가르치기로 했거든  
                   요.  
 활보            응? 뭐라구? 아유, 내가 오늘 피곤해서 현주씨 말을 영 못 알아먹네.  
 현주            영어 안 가르친다구요.  
 활보            영어를... 안 가르친다구?!  
 현주            네!  
  
 활보            아니 왜에~?  
 현주            (무조건 영어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  
                   요한데  
 활보            저기, 뭐라구?  
 현주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한국어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활보            아유 머래는 건지... (못 알아듣고 대충 얼버무린다.) 아, 아무튼 멀쩡한 엄  
                   마들은 자기들이 나중에 언제라도 가르칠 수 있지만, 현주씨는 다르잖아.

그냥 내가 가르치면 돼.』 6

『현주 저희는요... (활보가 듣지도 않자 조금 화가 난다. 말이 더 꼬인다.) 저는 그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싫어요.

활보 그래 그래, 우리 나중에 애기 아빠 오면 그때 다시 애기하자. 통역 좀 해 달라고 해야겠어, 호호호호호!

현주 에휴~ (생각난 듯) 근데 이놈의 인간, 왜 안 와? (열 받아서 전화를 건다. 전화기가 꺼져있다.) 으휴!

활보 쫓쫓... 오늘도 틀렸네. 일단 회의는 못 간다고 전화부터 해!

현주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활보 아니... 이 저녁에 혼자 나가겠다고? 아유...

그때 아기도 깨서 또 울어제낀다.(아기 우는 효과음)

활보 애기 깃네! 잠깐 기다려봐! 남편한테 전화도 다시 해보고!

현주 아유...』 7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dingdong~! ‘길동아~ 아빠 왔다!’

현주 으유, 저 인간!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와 아들을 안아주고 딸도 안아주고 있다.

남편 우와! 이게 누구야! 세상에서 최고 예쁜 내 마누라 아냐?

현주 (남편이 안으려 하자 꼭 꼬집으며) 길동아빠,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해! 술까지 취해서! 나 오늘 저녁에 회의 있다고!

남편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 딱 1시간 늦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남편 반쯤 누우있다)

현주 아무리 알바라지만 공감도 직장이야! 1시간씩 늦으면... 게다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애 둘을 어떻게 볼 거야!

남편 나도 최선을 다했어! 친구들 만나자마자 딱 몇 잔 마시고 나온거라고!

현주 미리 연락이라도 하든가! 그래야 나도 회의 조정하지!

남편 답답하다. 답답해!내가 당신 스케줄 맞춰주려고... 평생! 당신 활동보조나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현주 (하루 종일 애 본 건 나야. 친구들 만난 건 당신이고!

남편 애는 활보 선생님께서 보신거고...

활보 무슨 소릴 그렇게 해. 기저귀 간 것도 애 엄마고 ... 이유식 떠 먹인 것도 애 엄마데... 재우는 것만 내가 한 거야.

현주 활보 선생님이 천하무적이야? 애 돌보고 나 활동보조도 하게!

남편 아유, 몰라, 몰라! 얼른 회의하러나 가! 이렇게 싸울 시간에 나같으면 회의

하러 가겠다 (하품) 소주 딱 2병 마셨는데... 아 울렁거려!  
활보                    쫓쫓... 안 되겠네... 오늘 남편한테 애들 맡겼다간.... 무슨 일 나겠어!』 8

『이때, 남편 가방에서 주섬주섬 원가를 꺼낸다.

남편                   (가방에서 새 옷을 꺼낸다.) 짜잔~!  
현주                   (옷을 보며) 뭐야?  
남편                   당신이 몇 달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그 옷!  
                          집 앞 상점에서 똑같은 걸 팔더라구! 으흐흐흐... 입어봐, 입어봐! (아들  
                          게 같이 하자고 하며) 입어봐, 입어봐, 입어봐!  
현주                   문제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

현주, 남편을 즐겨보는데...

아들                    엄마 그 옷 입으면 장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거야!  
현주                    뭐! 휴....  
활보                    아유, 애 엄만 복도 많아. 남편이 옷도 사주고... 입어봐... 얼른...  
현주                    활보 선생님이... 애들 좀... 부탁드려요! 저 혼자...어떻게든 회의 다녀올테  
                          니까...

현주, 힘겹게... 전동휠체어로 바꿔 탄다.

아들                    엄마!  
아기                    으양!  
남편                    여보!  
활보                    아유, 왜 그래!  
현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회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들 할 말을 잃고 현주,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간다.』 9

유로운 움직임)

『DJ                    그날 밤, 혼자 아주 오랜만에 활동보조 선생님도 없이 남편도 없이 혼자  
                          지하철을 타면서... 이렇게 혼자라도 모든 걸 핑계치고 나온 그 일... 그 일  
                          이 ... 그날 한 일 중 가장 뿌듯한 일이었어요. 나다운 일이기도 했고요.  
                          성공한 삶이란 뭘까요? 장애인으로서 성공한 삶이란 뭘까요? 장애여성으  
                          로 성공한 삶이란 뭘까요? 남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누리고 사  
                          는 것? 글썸..

확확 지나는 밤 거리의 풍경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현주의 전동 휠체어.

현주            전 무엇을 누리든 내 중심을 잃지 싶진 않아요. 세상에 사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 듯이 저도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이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10

DJ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 여기는 불만폭주 라디오!

음악.

DJ             다음 사연의 주인공은 좀 특별한 분인데요, 지난 장애예술대상에서 연기상을 받은 배우, 나예슬님입니다. (환호성) 오~ 저기 나예슬 님의 팬클럽 분들이 환호성을 보내고 계시네요. 자,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실까요? (읽는다.)

나예슬의 나레이션(NA)이 흘러나온다.

예슬NA 저는 장애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의 배우, 나예슬입니다.저는 지난 10년 간 정기적으로 연극 공연과 퍼포먼스 공연에 출연하였고, 공연이 없을 때에는 극단의 워크샵에 참여하여 배우로서의 교양과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훈련과 공연 연습은 힘들고 때로 지루하지만, 저는 무대에서 걷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무대 위,』 1

『'110' 표시를 단 나예슬이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910' 표시를 단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다.  
춤추는 허리의 기존 공연영상이 편집되어 나와도 좋다.

예슬NA 그런데 오늘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예슬            얼마든지요!  
기자            나예슬 님은 자신이 예술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슬            네에...?

예슬NA 저는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을 멍하게... 멍하게 있었어요. 지난 10년 간 무대 위에 올랐던 나의 공연들은... 예술이기엔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쏟아지는 박수소리, 플래쉬, 던져지는 꽃다발들...』 2

『나예슬, 커텐콜을 한다. '910' 표시를 단 평론가들이 우루루 몰려온다.

평론가1 아주 훌륭했어요! 장애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평론가2 감동했어요. 오늘 저는 장애 극복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평론가3 오! 이런 시도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통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평론가들, 기자들, 관객들 사라지고』 3

『나예술 씨 우두커니 남아있다.

분장을 지우는 나예술.

예술NA 결국 비장애인의 공연을 좀 더 그럴듯하게 흉내 내고, 결과가 어떨든 시도만으로도 훌륭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표현하는지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공연만을 해 왔던 걸까요?

예술 (관객들에게) 도대체 예술이란 뭘까요?』 4

『'910' 표시를 단 학자들이 우루루 몰려온다.

학자1 예술이란 기술적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학자2 예술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자3 예술이란 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예술, 휴우 한숨을 쉰다.』 5

『예술NA 나는 어느 전시회에서 목격한 아주 이상한 예술을 기억했습니다.

무대는 전시회장으로 전환된다.

전시회장에는 아주 커다란 작가 싸인이 들어간 요강이 전시되어 있다.

작품의 제목은 '폭포'

예술 이게 뭐죠?

큐레이터 이 작품 몰라요? 유명하잖아요. 제목은 '폭포'라고

예술 이건 그냥 요강이잖아요

큐레이터 (고개를 흔들며) 노우노우~ 이건 훌륭한 예술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세요? 교과서에도 실렸잖아요! 어때요? 이제 뭔가... 뭔가 느껴지시죠?

예술 예? 아... 예...

예술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술NA 충격을 주지 않는 작품은 가치가 없다.』 6

『나예술, 연습 중이다. 슬슬 몸을 풀고 있다.

예술NA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만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고 무대 위에 나타날 때, 나의 몸이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예술, 휠체어에서 내려온다.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예술NA           그렇다면 나의 공연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예술’일 수 있는 걸까요?』 7

춤추는 허리 배우들, 자유롭게 움직인다.

예술               나는... 나의 몸은 나의 예술은 무엇일까?

나예술은 자신의 손을, 팔을, 가슴을, 배를, 허리를, 다리를 낮설게 바라본다.

배우들           안녕? 나의 몸?

다른 배우들도 여기저기서 제각기 몸에게 인사를 한다.

배우들, ‘나의 손’‘나의 다리’‘나의 가슴’‘나의 배’‘나의 허리’라고 중얼거린다.

배우들의 움직임은 춤처럼 보인다. 춤이 된다. 아름다운 춤이 된다.

『예술           공연을 준비하는 건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답을 얻는 것만 같거든요. 가끔은 이런 상상도  
                      합니다.

나예술과 배우들,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910' 표시를 단 학자들이 우루루 몰려온다.

평론가1           와우! 독특해요. 어떻게 이런 걸 상상했죠?

평론가2           나예술님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평론가3           신체의 움직임이 감동적이었어요. 엄청난 연습을 하셨나봐요!

평론가들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네요!!

평론가들 우루루 몰려나가고, 나예술과 배우들, 다시 움직임을 시작한다.』 9

배우들,  
‘당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공연한다.

공연이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마무리된다.』 10

『예술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히 세상에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배우들           (정면을 바라보며 웃는다.) 나는 예술가입니까?

음악.

DJ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 여기는 불만폭주 라디오

DJ 재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느리고 유쾌하고 까칠하게 살아가는 장애여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국내 유일의 공연형 사연 소개 프로그램, 불만폭주 라디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 세상을 맞추는 그날까지, 불만폭주라디오는 계속 온 에어~ 할 겁니다. 느리고 유쾌하고 까칠하게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 **불만폭주 라디오 대본집**

발생일 2018. 07

발행인 배복주

편집인 이진희

발행처 (사) 장애여성공감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664 대우베네시티상가 411호

전화 02) 441-2384

팩스 02) 441-2328

홈페이지 [wde.or.kr](http://wde.or.kr)

이메일 [wdc214@gmail.com](mailto:wdc214@gmail.com)

저작권은 장애여성공감에 있습니다. 사용시 출처를 밝혀주시오.  
무단복사, 전재 시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